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외모보다는 연기로 인정받고 싶다”

김태희(29)는 솔직했고 심플했다. 겸손했지만, 마음 속 이야기를 꺼내는 데 주저함이 없었고, 자신이 가진 카드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가감 없이 내보냈다. 좀 에둘러가도 되고 좀 피해도 됐지만, 그는 영롱한 빛이 감도는 얼굴처럼 진심이라는 정공법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KBS 2TV '아이리스' 촬영 현장에서 그를 만났다. 사진기자가 한동안 그의 의상이 너무 겹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촬영에 빠져들 정도로 그는 빛나는 미모를 뽐냈다.

김태희는 '아이리스'에서 NSS(국가정보원)의 최고 프로파일러 최승희 역으로 주목받는다.

“시청률이 30%를 넘어서 기쁘다. 나 역시 방송을 보며 이 작품이 카메라 움직임이나 스키텔에서 확실히 다른 드라마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첩보 액션 대작이지만 내가 초반에 액션 분량이 별로 많지 않아 잘 실감하지 못했고, 그저 대작에 피해만 끼치지 말자는 생각을 했는데 작품이 근사한 것 같다.(웃음)

최근에는 이병헌과의 멜로 연기가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베드신이 화제였다.

“반응이 좋아 다행이다. 이병헌 선배가 멜로 아이디어를 많이 내셨다. 키스하며 입에 든 사람을 전해주는 것이나, NSS 사무실에서 책상 밑으로 승희가 현준의 다리를 쓰다듬는 장면 등이 그렇다. 승희의 다리에 현준이 수갑을 채우는 건



‘아이리스’ 김태희

“입 속 사탕 건네면서 이병헌과 키스신 이 작품이 연기인생 터닝포인트 될 것”

내 아이디어였다.(웃음) 두 사람이 요원 이니까 데이트도 조금은 다르게 할 것 같았다. 베드신은 편하게 찍었다. 말이 베드신이 난 민소매 티를 입었고 침대에서 키스하는 정도라 크게 부담은 없었다. 베드신보다는 NSS에서 기습 키스를 당한 후 현준의 뺨을 때리는 연기가 감정적으로 훨씬 어려웠다.”

김태희는 이 작품에서 액션 연기도 소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면 것은 많이 어렵다. 처음에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욕이 컸는데 연습하면서 다치고, 또 같은 여자인 선화(김소연)와 싸우느라 죽기 살기

로 싸우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런데 10부에서 보일 액션 신은 마음에 든다. 테러리스트랑 붙는 신인데, 상대가 덩치 큰 남자 배우라 내가 마음 놓고 때렸다. 그분이 촬영 끝나고 ‘때에는 장사 없더라’며 괴로워하셨는데 너무 미안해서 맛있는 밥을 썼다. 액션 연기하느라 정말 온몸에 힘이 잔뜩 들었지만 하고 나면 쾌감이 든다. 변태인가?(웃음)

승희는 현재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원래는 매사 자신만만한 캐릭터다. 김태희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

“난 자신감이 많이 없다. 내가 마치 못 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고민도 없

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도 콤플렉스가 있고, 고민이 너무 많다. 연기를 시작한 후에는 미래가 막막할 때가 많았다. 지금도 뭔가를 깨닫지는 못했고 여전히 연기가 어렵고 그에 대한 고민도 진행형이다. 말도 안 되는 루머에는 별로 동요를 안 하는 편이다.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가장 상처를 받는 것은 연기력 논란이다. 나도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리스’를 통해 그동안의 막연하고 답답했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 작품이 내 연기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현재 최고의 스타인 김태희지만 그녀는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듯했다.

“스타? 잘 모르겠다. 이미지나 외모로 남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듯하다. 좋은 것보다는 부족한 게 더 크게 눈에 보이고, 부정적인 시선에 더 고민하게 된다. 외모 또한 큰 이목구비가 연기자로서는 그다지 좋지 않다는 생각도 한다. 작은 표정도 크게 읽혀 ‘오버’ 논란이 나오는 것 같고, 또 내가 입이 풀출렁이라 잘 안 닫히는 것도 콤플렉스다. 교정을 했는데도 그렇다. 의사 선생님들이 최대한 집어넣었는데 여기가 지가 한계라고 하더라.(웃음) 지금껏 CF에서 워낙 예쁘게 만들어줬으니 드라마에서는 그보다 못할 텐데 어쩌나 걱정했다.”

힙합그룹 DJ.DOC

5년만에 7집 나온다

힙합그룹 DJ.DOC(이하늘, 정재용, 김창렬)가 연말 공연에서 5년 만의 신곡을 선보인다.

DJ.DOC는 이달 말 5년 만의 새 음반인 7집을 발표하며 12월 30~31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펼쳐는 공연 ‘전국 노래자랑’ 레퍼토리에 신곡을 포함할 예정이다.

예능프로 ‘놀러와’와 ‘천하무적 야구단’ 등에 출연하고 있는 이하늘이 프로듀서인 7집에는 싸이 등이 작곡가로 참여했다.

‘지붕뚫고 하이킥’ 진지희·서신애

“시트콤서 앙숙일 뿐 우리 무진장 친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카메라 앞에서 티격태격하며 싸우던 두 아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지금은 사이좋게 폭 붙어 앉아있다.

“시트콤은 시트콤이잖아요. 저 사실 언니랑 무진장 친해요.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지희)

“지희가 잘 막 밀치고 때리고 하면요? 솔직히 조금 억울하긴 하죠. 제가 지희보다 1살 많은데... 하하. 그래도 다 연기고 재미로 하는 거니까 이해하죠. 지희랑 사이 좋아요.”(신애)

시청률 20%대를 넘보며 인기몰이 중

인 MBC 일일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의 두 아역 정해리 역의 진지희(10)와 신신애(11)를 만났다.

신애가 휴대전화로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해리가 옆으로 몸을 기대 문자 메시지를 같이 보기도 하고, 해리의 품 속에 안긴 너구리 인형에 대해 “꼬리가 좀 더 짧았으면 더 귀여울 것 같다”고 신애가 말하면 해리는 “이렇게?”라며 너구리의 긴 꼬리를 절반 정도 접는다.

“인형, 귀엽죠? 히히. 한번은 제가 언니를 이거 말고 다른 인형으로 막 때리

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인형 팔이 이렇게 막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니가 인형 팔 안쪽에 끼어서 안 빠지는 거예요. 키크. 그래서 저희 둘이 막 웃었어요.”(지희)

“아, 저도 그거 말고 촬영할 때 또 재미있는 거 있었어요. 아직 방송은 안 됐는데요. 이순재 할아버지가 광고를 찍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요. 할아버지 놀리려고 광고(문구)를 고쳐요. 음식에서 바꾸 뱀새 난다고, 으하하.”(신애)

둘이 앙숙으로 나오는 것은 시트콤 상의 설정일 뿐이라고 말은 의젓하게 하지



〈서신애〉

〈진지희〉

만 인형과 방귀라는 말에 큰 소리로 웃는 것을 보니 초등학생은 역시 초등학생인가보다.

“공부할 거 가지고 와서 쉴 때마다 조금씩 봐요. (대기실 구석에 있던 가방을 가리키며) 저기 안에 책이 있어요.”(지희) “아, 그거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공부할 거 가지고 오는 거 원래 제가 일조예요. 원조. 제가 먼저 그렇게 공부했어요.”(신애)

“음... 그건 맞아요. 언니가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저도 그렇게 따라 했어요. 히히.”(지희)

50th



사랑과 희망으로 크는 국제약품-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50년을 함께해온 국제약품의 사랑과 희망- 그 속엔 늘 고객 여러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약품 510명은 가장 좋은 약은 “사랑”이라는 신념으로 이땅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참여한 지난 50년-

그 마음, 그 신뢰감, 그 사랑 그대로 50년, 100년 고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비타민 A, C, E의 보급

- 독해피로, 일산, 수족기 병후, 병후유해 제거 시 노년기
- 눈의 건조감과 명화, 야맹증
- 햇빛 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미, 주근깨)의 완화, 인공눈물, 비출혈 예방
- 알츠하이머질병 및 경각기시 다중 증상의 완화
- 허벅지, 팔꿈치, 수족저변 수족관통

아연의 보급

광고심의필 : 1005-0400